

시온 주보

제2552호
2025년 4월 6일(다해)

사순 제5주일

간음하다 잡힌 여자와 그리스도

에밀 시뇰
(Émile Signol, 1804-1892)
1842, 캔버스에 유채, 141x114.3cm
디트로이트 미술관, 미국 디트로이트



입당송 | 시편 43(42), 1-2 참조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불충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43, 16-21

화답송 | 시편 126(125), 1-2, 7, 22-23, 3-4, 5-6 (◎ 3 참조)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

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필리 3, 8-14

복음환호송 | 요엘 2, 12-13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음 | 요한 8, 1-11

영성체송 | 요한 8, 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요한 8, 11)



구요비 읍 주교 | 서울대학교 구 총대리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은유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호세아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契約)을 신랑과 신부 사이의 혼인 계약으로 묘사합니다. 이에 따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사랑을 멀리하여 계약에 불충실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을 신랑이신 주 하느님께 불충실한 간음으로 규정합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 즉 계속 집을 나가 외간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달래고 집으로 데려오는 삶을 돌이켜보다가, 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내로 삼으리라. 정의와 공정으로써 신의와 자비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라. 또 진실로써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네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호세 2, 16,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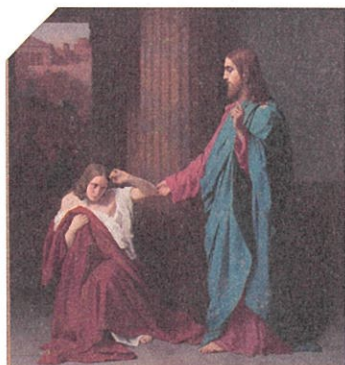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히 에로스와 할 수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아가페이기도 합니다.”(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9항)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냉혹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신랑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묵시 19, 7-9 참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 7) 예수님

께서는 죄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이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응답하는 길은 무엇 일까요?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1요한 4, 20)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우리가 응답하는 길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이웃에게 하느님께서서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치 기준의 중심은 인간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무한한 존엄성이 무시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속한다는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런 시대의 사조는 남녀 간 상호 존중과 인격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에 다툼과 이혼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응답하는 길은 인간 삶의 중심을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에 두고 이 사랑의 원리를 살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즉, 그 어떠한 극한적인 실존의 상황 안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성화 해설

에밀 시놀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다른 작가의 그림들과 달리 독특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복음과도 조금 다르게 묘사합니다. 복음은 여자가 그대로 서 있었다고 전하는데 그림에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폭력과 죽음의 공포가 눈가에 가득합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손길마저 피하려 합니다. 성전 밖 군중은 어둠 속에서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그림은 거대한 기동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왼쪽은 인간의 죄와 판단으로 소란하지만, 오른쪽의 예수님께서서는 단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길로 초대하시고 다시 하늘을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조혜원 프란치스카 | 금호동성당 사목협의회 총무

미사를 드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의 현존을 머리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세상의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어둠 속에 갇혀, 나 혼자 있는 듯 불안해하며 걱정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본당 원장 수녀님의 권유로 여성 구역 회계를 맡아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성 구역이라는 공동체가 본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했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수녀님의 요청에 망설이지 않고 봉사하겠노라 선뜻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맘 깊은 곳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규모와 상황에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본당의 크고 작은 행사를 치러야 했고, 환자 봉성체와 장례식장 방문 때 신부님, 수녀님을 모시고 함께해야 했을 뿐 아니라, 여성 구역이 공동체로서 구역과 신자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총구역장님과 수녀님, 다른 봉사자들과 더불어 일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봉사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봉사와 내 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성당 일에 매진하는 아내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들들의 원성도 들어야 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봉사가 해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일이 생각처럼 잘되지 않을 때는 자책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모든 봉사가

가능했고, 결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잘되길 바라는 기대는 정말 중요하지 않으며, 결국은 주님을 위한 봉사이기에 제가 그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어요.

처음 수녀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신 저의 믿음의 원천도 주님이셨고, 제가 여러 현실적인 생각으로 힘들어할 때, 항상 곁에서 함께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무거운 제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게 해 주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서는 수시로 저를 일깨워주십니다.

봉사로 더욱 단단해지는 믿음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쁘게 미소 지으며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하느님 기준이 아닌 제 생각과 판단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로 주님의 자녀로서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 저는 매일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1 신기술의 사용

신기술의 사용이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박미정 노엘라 | 작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군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번져, 관계 당국은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산불 진화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꺾이지 않는 산불의 확산 속도에 정부는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수많은 마을과 주민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마을로 덮쳐온 산불로 주민들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연기와 불길 속에서 제대로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대피소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직접 보내준 경북 피해 지역 사진들은 주민들의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이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화마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사진이 우선은 이게

전부라서 더 들어오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생을 거주했던 삶의 터전이 화마로 잿더미가 된 주민들은 인근 학교와 체육관에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서 매트를 깔고 지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불편한 삶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 타버려 돌아갈 수 없는 집, 피해 입은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가축을 걱정하며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황망하고 아픈 마음을 추스르며 이 상황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바보의나눔은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산불 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성을 모아 일상이 무너진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생활비와 필수 생활용품 등을 우선 지원하며, 추후 피해 정도를 확인하여 주민들이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 구입비와 집 수리비 등을 피해 지역이 속한 교구 및 지역 사회복지 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마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이 하루속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4월 5일~5월 2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재)바보의나눔’을 통해 경상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 ② 전화 신청: 02)727-2507 (재)바보의나눔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바보야
김수환 추기경
2017

인간의 지능, 기계의 지능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최근 2023년, 벨기에의 30대 남성이 인공지능(AI) 챗봇에 고민을 털어놓으며 의존하다 자살을 권유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미국의 모바일 메신저 회사는 채팅할 때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가상 친구 AI를 출시했고 구글 트렌드 데이터는 ‘AI 이성 친구’ 검색어가 2,40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고 없이 단어를 생성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계 뒤에 마음이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AI 전문가, 에밀리 벤티)

현재 생성형 AI는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연설, 이미지 등의 고급 산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은 사용자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식별 능력이 없을 경우,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자유의지를 기계에 위임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AI는 인간 지능의 ‘특정 기능’을 모방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이지만 정량적 데이터와 전산 논리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설사 하나의 인간으로 보아도 무방한 지적 수준의 인공지능(강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해도 영혼을 가진 인간, 영혼의 작용인 감정을 지닌 인간과는 다른, ‘피조물의 피조물’이므로 의식과 도덕적 판단 능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머신 러닝과

같은 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이는 감각적 경험, 정서적 반응, 사회적 교류, 각 순간의 고유한 맥락 등 구체화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 지능의 발달적 성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교회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이 기술로 세상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은 인간관계에 대한 감각, 넓은 지평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기계의 지능을 인간의 지능과 같거나 보다 낫다고 여겨서는 안 되며, 인간 지능의 ‘결과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인간 지능의 노동력의 결실인 과학적 탐구는 하느님과 함께 가시적 창조물을 완성하는 협력의 일부여야 합니다. 모든 과학 기술적 성과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인간 창의성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생명의 신성함,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기술 개발이 책임 있게 전개되어야 하고 더 큰 정의, 형제애, 사회 질서의 추구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참다운 지혜는 무엇인지, 현재의 인류가 참된 진리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한 지식의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완벽함의 척도는 그가 습득한 정보나 지식의 양이 아닌 그가 행하는 사랑의 깊이입니다.”(《옛것과 새것》 116항)

익숙함을 소중히 여기기



김현수 요한보스코 | 청년성서모임

작년 11월, 봉사하면서 느낀 것을 서울준보에 나눠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청년성서모임 담당 신부님께 받았습니다. 흔쾌히 하겠다고 답을 드렸으나 막상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주제도 찾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출근길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가사 중에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의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구절이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어느덧 햇수로는 10년째 유럽 청년성서모임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봉사하면서 새로운 그룹원 또는 연수생을 만날 때 느끼는 설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서모임은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계셨던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이고, 노래 가사처럼 제게 익숙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해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냉담 기간 없이 성당을 계속 다녔지만, 저는 부르심을 받은 기억도 딱히 없고 하느님 체험도 하지 못했다고, 그런 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극적이고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사건 이리라 생각했습니다. 냉담하다가 특별한 계기로 성당에 돌아온 사람들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성서모임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살아온 삶과 신앙 여정 안에서 제가 성당에서 발길을 끊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당을 나가는 이유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복사를 설 때는 전례 그 자체에 매료되어서, 그러다 성가를 부르는 것이 좋아서, 오르간 음악이 좋아서, 성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 돌이켜 보면 성당에 가는 것은 제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당을 다니면서 제 믿음이 30여 년 동안 한 겹 한 겹씩 쌓이며 어느덧 기적과 같은 두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하셨는데, 익숙함에 젖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청년성서모임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곳입니다. 성경을 읽고, 각자의 삶을 돌이켜 보며,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부르심, 그분의 현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계셨으나 익숙함에 숨겨져 있던 그분을 발견한 특별한 곳이 제게는 바로 청년성서모임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더욱더 익숙함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노력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4

이상한 주머니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권상연(야고보) 복자가 신주를 없애 버렸다는 소식에 관헌들이 그의 집을 수색해 뒤뜰에 묻힌 위패를 찾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사학징의》 끝에 ‘요화사서소화기(妖畫邪書燒火記)’란 글이 실려 있습니다. 1801년 5월 29일 서학 죄인을 사형에 처한 직후, 압수해 온 천주교 관련 책자와 성물을 한데 모아 태우면서 그 품목을 목록으로 작성해 둔 것입니다.

대부분 교리서였지만 그중 이상한 주머니들에 관한 기록이 눈길을 끄니다. 한신애의 집 땅속에서 파낸 물건 중 작은 주머니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머리카락과 나무 조각, 그리고 잠분말 같은 요사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신애의 딸 조혜의는 공초에서 이것들이 몇 해 전 사학을 하다가 사형을 당한 사람의 머리카락과 목을 벨 때의 목침이라고 진술합니다.

정섭의 집에서도 작은 주머니 하나가 나왔는데, 역시 자잘한 나무 조각과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섭은 그것을 성혈(聖血), 또는 흑진(黑珍)이라 불렀고, 신자들이 늘 몸에 차고 다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794년 12월에 아들이 위독한 것을 보고 윤유일이 자신이 찾던 주머니를 꺼려주며 끓는 물에 담갔다가 마시면 금세 효

험을 볼 수 있다고 했다면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성혈 또는 흑진은 순교자의 피가 응고 되어 검은색으로 변한 것이었을 테고, 나무 조각은 순교자의 목이 얹혔던 목침이 칼에 맞아 조각난 부스러기였겠지요. 1794년 이전에 순교한 사람은 윤지충과 권상연뿐이었으니, 주머니 속 머리카락과 피의 주인공은 이 두 사람이 분명합니다.

달레는 《한국천주교회사》에서 두 사람이 사형당하고 9일 만에 장례 허락을 받아 교우들이 그들의 시신 앞에서 머리를 얹고 자른 나무토막과 판결문이 적힌 명패 위에 방금 전 흘린 것처럼 붉고 신선한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고 썼습니다. 당시는 엄동설한이라 그릇 속의 물이 얼어붙던 추위여서 사람들의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교우들은 많은 손수건을 순교자의 피에 담가 그중 몇 조각을 북경 주교에게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의사조차 포기했던 환자가 피에 젖은 명패를 담갔던 물을 마시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았고, 죽어가던 사람 여럿이 피 묻은 손수건을 만지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자주 일어났다고 달레는 적었습니다.

윤지충, 권상연의 목이 잘리고 1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교회 지도자급 인물들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과 목침의 나무 조각, 성혈이 묻은 천 조각 등이 든 주머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교자의 피 묻은 머리카락과 나무 조각들을 몸에 지니면 그들의 뜨거운 신심이 자신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믿었던 걸까요? 믿음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 마음이 정수리 위로 찬물을 끼얹어 준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사순 시기 평일에 거행하는 신심미사에 관하여

- ① 사순 시기의 평일은 전례일의 등급에서 2등급에 위치하고, 그 중요성에서 의무 기념일보다 앞서고 있습니다.(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4항, 16항 및 전례일 표)
- ②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도 사순 시기의 평일에 사제는 해당 전례일 미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미사 경본 총지침 355항 / 장례미사 허용과 관련해서는 미사 경본 총지침 380항 참조)
- ③ 다만 “신자들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나 어느 성인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으면 선택 기념일이라도 그들의 정당한 소망을 존중하여”야 하고,(미사 경본 총지침 355항) “중대한 필요가 있거나 사목에 유익한 경우에는 대축일, 대람·사순부활 시기의 주일, 부활 팔일 축제, 죽은 모

든 신자를 기억하는 날, 재의 수요일, 성주간을 제외하고, 교구장 주교의 지시나 허락을 받아 언제나 그에 알맞은 미사를 드릴 수 있다.”고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바(미사 경본 총지침 374항)

- ④ 교구장님께서 현재 본당에서 거행하는 성모신심미사에 대해,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적 유익이 충분할 경우, 본당 사목구 주임의 주 깊은 판단에 따라 사순 시기 평일에도 거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사순 시기 평일 전례를 거행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4월 7일 이석충 사도 요한 신부(89세)
- 2023년 4월 11일 최치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86세)

교구청 알림

가톨릭학생회에서 뭐하니

친구들과 주도적으로 신앙을 찾아가는 단체
중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문의: 02)742-4151 학교사목부

2025 친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친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여행: 11월 12일~21일(여행지: 조창수 신부)
문의: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슬픔 속 희망찾기’ 4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때: 4월 12일(토) / 성삼일 관계로 월례미사 변동) 10시
(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5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명동 부활축제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명동 부활축제’가 열립니다 /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때, 곳: 4월 20일(주일) 9시~16시, 명동대성당 야외마당
내용: 생명존중 및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작가 작품 전시, 사회복지회 나눔 마켓 등 / 문의: 02)727-2437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4월 11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가톨릭교육자의 날

내용: 서울 가톨릭초·중등교육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특강을 통해 위로받고 신앙을 다지는 시간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 미사: 담당사제 공동 집전
때: 4월 26일(토) 오전 9시~오후 4시
곳: 성심여자중·고등학교(용산) / 회비: 3만원
신청: 온라인 신청서(https://www.kycc.or.kr) 팝업창 참조
문의: 02)566-5456, 02)553-7320 학교사목부(CCE)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정기총회 및 후원회원 월례미사

때: 4월 7일(월) 10시 총회 / 11시 미사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정대식 개인전: 1, 2전시실
김도연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4월 11일(금)~20일(주일)

146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4월 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벽본당’: 서울교구(북벽지역) 송화본당 / 문의: 02)727-2420

순교자현양위원회 성지순례

- 1) 하루일정 전국 성지순례
때: 4월 22일(화), 4월 26일(토), 4월 27일(주일)
곳: 해미 순교성지, 한티고개, 상홍리 공소
신청: 4월 7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 회비: 1인 6만원
- 2) 원종현 신부님과 함께하는 중국 성지순례 - 브뤼기에르 주교님을 따라가는 신앙 여정
때: 6월 10일(화)~15일(주일) 5박6일
곳: 북경-장가구-서만자-마가자-적봉-조양-금주-심양-변문-단둥 / 문의: 02)2269-0413
회비: 1인 210만원(4월 30일 접수 마감)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가톨릭상담봉사자 교육
때: 매주(화) 오후 2시~4시(1, 2학기 / 총 16주)
회비: 학기당 8만원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2) 영성심리상담가 / 문의: 02)727-2126
교육명: 바이올린(김수연), 뮤지컬(이슬), 심리강좌(윤제연), 이태리 배우기(류젠마), 집단상담(최현정), 해금(정겨운)
신청: 홈페이지(https://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3)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 2)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중인 신자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제73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문의: 02)727-2278, 2283
때, 곳: 4월 10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생명위원회

- 1) 4월 생명위원회 미사 안내
때, 곳: 4월 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2 생명위원회
-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
때, 곳: 4월 8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 02)727-2350 생명위원회

(2025/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 문의: 02)727-2047

4월 7일부터 홈페이지(https://culture.catholic.or.kr) 접수

기초 초보자를 위한 기도 훈련	4월 22일-6월 17일 매주(화) 19시~20시30분
서양미술사 다시 읽기	4월 25일-5월 23일 매주(금) 19시30분~21시
민화로 성경 속 식물 그리기(원데이)	4월 25일(금) 14시~17시
말씀 정원 액자 만들기(원데이)	4월 25일(금) 14시~16시
쓰담쓰담, 그림책으로 내 마음 돌보기	5월 9일-6월 13일 매주(금) 13시30분~15시
레진으로 세례성 물의 흐름 만들기(원데이)	4월 30일(수) 14시~17시 · 19시~21시
우드버닝 미니 트레이(원데이)	4월 30일(수) 14시~17시 · 19시~21시
영화가 가르키는 하느님 나라	5월 13일-6월 10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신앙의 빛을 담다 - 글라스아트	5월 13일-6월 10일 매주(화) 19시~21시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 성경	5월 15일-6월 1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오병이어 손뜨개 수세미	5월 20일-27일 매주(화) 14시~17시
캘리그래피 성경 쓰기	5월 28일-6월 25일 매주(수) 19시~21시
왕초보를 위한 가톨릭 대별권 드로잉(반)	5월 28일-6월 25일 매주(수) 15시~17시
가톨릭 화선 아이패드 드로잉(재택)	5월 28일-6월 25일 매주(수) 19시~21시
프랑스 자수로 가톨릭 소품 만들기	5월 28일-6월 25일 매주(수) 19시~21시
세례성수제도장 만들기	5월 29일-6월 26일 매주(목) 19시~21시
마크레예 목주 및 액세서리 만들기	5월 29일-6월 26일 매주(목) 15시~17시 · 19시~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도미니코회 봉쇄수도원 젊은이 피정

때: 4월 26일~27일 / 문의: 010-6561-2906
홈페이지(dominicocorea.modoo.at) 참조

4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4월 24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젊은이 해외 선교 체험

대상: 만 18세~40세 미혼 남녀 신자 / 문의: 010-5715-1702 아씨의 프란치스코 선교 수녀회
때, 곳: 6월 24일~7월 2일, 인도네시아 메단

예수 전교회 치유 대피정

때: 4월 12일 오후 1시~5시(4시 토요일전미사)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사: 김완식
담당: 김인성 신부 / 문의: 010-8898-6770

글라셋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4월 13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4월 '침' 사순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4만5천원
때, 곳: 4월 11일(금) 20시~13일(주일) 10시, 본원(혜화동) /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피정

문의(접수): 055)973-3788

수도원 스테이	4월 25일~27일, 5월 23일~25일, 6월 13일~15일, 9월 19일~21일, 10월 17일~19일, 11월 14일~16일
침묵 관상 피정	5월 11일~15일, 6월 15일~19일, 9월 14일~18일, 10월 2일~16일, 11월 9일~13일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4월 12일(토)~13일(주일), 6월 28일(토)~29일(주일)
2박3일	5월 4일(주일)~6일(화), 6월 23일(월)~25일(수)
3박4일	6월 5일(목)~8일(주일), 7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4월 23일(수)~5월 1일(목), 5월 14일(수)~22일(목)
40일	4월 21일(월)~5월 30일(금)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단식 피정	4월 9일~13일(4박5일)
성지순례(크로아티아·메주고리에)	4월 27일~5월 9일(12박13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5월 9일~11일(2박3일)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5월 17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	6월 27일~29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ICPE 청년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때: 5월 10일·17일·24일(토)·25일(주일) / 카카오톡: ICPE
곳: ICPE 합정센터 / 문의(접수): 010-5320-0419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 25일~28일·5월 16일~19일·6월 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55)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일 둘째(토) 4월 12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속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곳: 4월 25일(금)~27일(주일) 2박3일, 스승예수
피정의 집(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원양1로 816)
4월 17일까지 접수(1인1실) / 문의: 02)2135-9398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순례(성지·자연, 섬, 말씀초대)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4월 23일~25일·5월 21일~23일·6월 9일~11일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2025년 성령쇄신 전국대회 / 문의: 02)777-3211

강사: 어거스틴 문탁자 신부(인도, 말씀과 치유 은사)
미사: 손희송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때, 곳: 4월 26일(토) 9시~17시30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대상: 모든 교우
주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

2025년 성모님께 드리는 33일 봉헌

곳: 지혜의 샘(부천시 경인로 61-1 / 전철 1호선 중
동역 5분거리) / 문의: 010-3248-9705

- 1) 부활대피정: 4월 23일(수)
강사: 한연희 신부, 한영임 회장
- 2) 성모님께 33일 3차 봉헌: 4월 2일~5월 4일
오전 묵주기도 20단, 오후 봉헌 기도(강의·기도·파견미사)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4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상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상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 1)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4월 7일(월) 10시~16시
- 2) 4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때: 4월 12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운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사순 1일 피정(개인·소그룹)	4월 10일(목)
영성수련 2박3일 피정	4월 11일~13일, 5월 2일~4일
폼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수시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37차	5월 16일(금)~24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8차	6월 13일(금)~21일(토)	
제139차	7월 11일(금)~19일(토)	

전대사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하늘이 열렸다 / 성체조배
때: 4월 13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설립 50주년 대피정

강사: 이창진 신부 / 미사 주례: 구요비 총대리 주교
때, 곳: 4월 30일(수) 12시~16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주최: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제주 면향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5월 10일~12일·5월 20일~22일·6월 15일
~17일(주차도 포함)·6월 20일~22일·9월 15일~17일·10월
10일~12일, 주차도포함 성지순례 4월 27일~30일·5월 4
일~7일·5월 26일~29일·6월 1일~4일·9월 9일~12일·10
월 16일~19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9일~21일,
7월 31일~8월 3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 25일~27일·4월 29일~5월 2일(주차도)·5월 9
일~11일·5월 13일~15일·5월 17일~20일(주)·5월 21
일~23일(성모의밤 포함)·5월 24일~26일·6월 2일~4일
·6월 6일~8일·6월 12일~14일·6월 21일~23일(주)·7
월 1일~4일(주)·7월 12일~14일·7월 18일~20일(우도)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청년 엠마우스(성심수녀회)

내용: 신앙 안에서 삶의 의미와 방향찾기
방법: 월 1회 온라인 영성강의 및 개별 영적동반
대상: 39세 이하 미혼 남녀 / 문의: 010-5696-2331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 14일~28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디오니소스와의 대화(와인 인문학)

강사: 장홍 / 홈페이지: www.jiscen.or.kr
때: 4월 24일~6월 12일 매주(목) 19시~21시(총8주)
문의: 02)726-0700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본당 영유아 신앙교육 / 문의: 010-8724-2012

주제: 본당 영유아 신앙교육 사례 발표
때, 곳: 4월 10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05·2호
주최: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영유아교육분과)

시니어 종이접기 조형 지도사 과정(48시간) 수업

(뇌튼튼) 촉각을 활용한 인지능력 향상프로그램
때: (화) 2시간(주1회 48시간)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템나 음악원(주최, 신촌)

부천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 봉사자 신규교육

때, 곳: 4월 23일(수)~24일(목),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요셉관 5층 대강당 / 문의: 032)340-2435
4월 16일까지 전화 접수 후 교육비 입금
회비: 5만원 / 계좌: 우리은행 1002-165-083856 김정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생활성가 반주법 강좌

때, 곳: 목요일반 매주(목) 19시~21시·금요일반 매주(금) 10시~1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강의실
회비: 20만원(8회 기준) / 유튜브: 한샘생활성가 문의(접수): 010-7244-1312 (강사에게 직접 연락)

성서가족과 함께하는 영화포럼(시즌2)

비대면 진행(매주 1회) 안내강의 후 포럼
자세한 내용 안내 및 접수는 홈페이지(4월 25일까지)
회비: 3만원 / 입금 계좌: 우리 1005-604-098967
이름: 이대현(씨네큐브 대표·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김혜원(피엠펙처스 대표·전 동국대영상대학원 연구원)
문의: 02)824-4363(www.biblemove.com) 가톨릭성서모임

여의도성모병원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때, 곳: 4월 24일(목)~25일(금) 8시30분~18시, 여의도성모병원 본관 4층 강당 / 문의: 02)3779-1804, 2558
4월 14일(월)까지 선착순 00명 접수
회비: 5만원·현장접수 6만원
계좌: 우리 832-04-100745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 등록 후 취소 불가, 주차 불가
카카오채널: 여의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때, 곳: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 문의: 02)3276-7799
4월 24일(목) 나르시시즘과 영적 교만 최지원 수녀
5월 22일(목)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송봉모 신부

모집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봉사자 모집

전화상담 봉사하실 여성 신자 / 문의: 02)990-9360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해화동 / 문의: 010-8932-0910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오곡: 가톨릭성가 중 1곡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단원 모집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성음악아카데미(증림동)
지휘: 성공용 / 문의: 010-9042-8811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때: 주1회 3시간 / 분야: 안내봉사
대상: 40세~65세의 심신이 건강한 남녀
문의: 02)2030-3456 자원봉사센터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4월 24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특강: 최연수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4월 7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 이사회 청년 월례 미사

대상: 이웃 사랑과 나눔에 관심있는 청년 신자
집전: 이원석 신부(청소년·청년 담당 영적 지도 사제)
때, 곳: 4월 26일(토) 17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78-4476 한국 이사회 사무실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심리치료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때	평일 오전 10시~12시 / 매월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 기관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입학설명회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학교설명회	4월 26일(토) 15시(예약 필수), 현지 학교 관계자 참석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 아일랜드(6개월 이상)
여름캠프	초3~중2 / 아일랜드 2주·4주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컷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수녀회)

사별가족 돌봄 프로그램 '사랑샘'

대상: 사별을 경험한 가족으로 회복의 시기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배우자 사별에 한함)
때: 5월 13일~7월 1일 매주(화) 14시~17시(8회)
곳: 가락2동성당(주최, 송파구 중대로20길 20-1)
문의: 010-9637-1612 신 카타리나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9146-7654

떼제노레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월 세번째(토) 4월 19일·5월 17일·6월 21일 15시 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해화로2길20) 성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매체심리 상담전문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상담신청 대상: 우울, 중독증상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아동·청소년·성인
교육	모래놀이상담사자격교육 수시 모집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과정 4월 24일~5월 29일(목) Read&Sand play 7세~8세 아동 모집 / 자세한 정보는 다음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여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 문의: 010-7171-9503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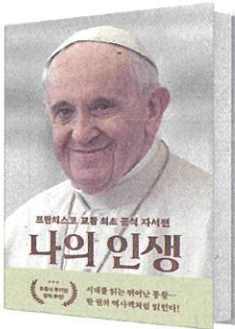
분야: 연구직원(정직원 TO) 1명
원서접수: 4월 14일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서 홈페이지(www.kyos.or.kr/ca)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 02)553-7320, 1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피정의 집·진관동)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 정규직 전환 가능), 육아휴직대체 교구사무원 0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타교구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성 마리아 재속회	수시	양성소	02)980-0385, 010-6462-0385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4월 19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수시(Zoom)	Zoom 만남 / 부산·서울 수녀원	010-9353-1773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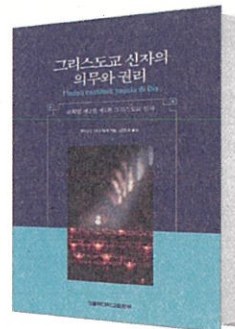


신간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 나의 인생

프란치스코 교황·파비오 마르케세 라고나 지음
월북 | 296쪽 | 1만9천8백원
문의: 031)955-3777

프란치스코 교황이 80년 넘는 세월 동안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그 세월과 함께 이어져 온 자신의 삶을 풀어놓은 자서전이다. 전쟁과 테러, 경제 위기, 팬데믹 등을 겪으며 내놓은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 유홍식 추가경은 이 책의 서문을 통해 "오늘날 발생하는 교회와 세상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이 이 책에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신간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루이지 사바레세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60쪽 | 2만1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교회법전> 제2권 '하느님 백성'에 나오는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법 규정을 해설하고 있다. 신자들이 교회 구조에 수동적으로 종속되거나 율법주의에 매이는 것을 방지하고, 사목적 쇄신과 사도직의 창조적 실천,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더욱 능동적이고 협력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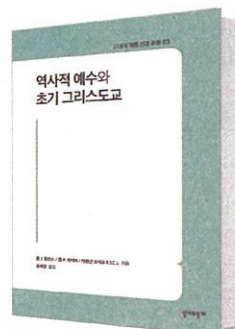


신간

예루살렘의 멸망과 토라의 등장

페테르 두보프스카도미니크 마를 외 역음
성서와함께 | 616쪽원 | 3만4천원
문의: 02)822-0125

기원전 587년 바빌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엄청난 재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오경의 발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스라엘이 겪은 공동체적 트라우마가 오경에 반영되었는지, 그랬다면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었는지, 오늘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03 역사적 예수와 초기 그리스도교

존 J. 콜린스·존 P. 마이어 외 지음
성서와함께 | 264쪽 | 2만1천원
문의: 02)822-0125

신약성경 입문서로 예수와 초기 예수 운동의 근간이 된 종교·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다룬다. 이를 통해 예수님과 그리스도교가 형성된 토대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넓은 시각으로 탐구할 수 있다. 학문적 논의를 쉽게 풀어내면서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다.



연주회

2025 서울시향 드뷔시와 라벨

때, 곳: 5월 15일(목)~16일(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입장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 문의: 1588-121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2023년 내한해 홀스트 '행성'을 연주했던 미국 지휘자 휴 올프가 다섯 번째로 서울시향과 호흡을 맞춘다. 주요 프로그램은 라벨의 '고귀하고 감상적인 왈츠'와 드뷔시 '바다' 등 프랑스 작품들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활동하며 메시앙에게 작곡을 배운 올프의 남다른 감각이 서울시향을 통해 피어난다.



연주회

국립합창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테 데움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1544-7744 롯데콘서트홀, 1544-1555 인터파크 티켓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

국립합창단의 제201회 정기연주회 <테 데움(Te Deum)>이 4월 15일(화) 19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드보르작, 엘가, 브루크너의 테 데움을 한 자리에서 조명하는 무대로 영광과 희망,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담았다. 웅장한 합창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기악 편성법)이 어우러져, 낭만주의 거장의 합창 음악이 지닌 정수를 선사한다.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4월 1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잔치가 있습니다.

◎ 전신자 부활맞이 대청소

일시 : 4월 13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개인 준비물 : 걸레, 고무장갑

청소 구역	구역
대성전 1층·2층	4. 자부회
제의방쪽 창문, 사무실 뒤 계단	양업회
지하소성전 및 통로	1. 청년
지하식당, 이레밴드실	6, 10
지하주차장	이레밴드
교육관 1층	8. 연성회
교육관 2층	11
교육관 3층	3, 7
영안실, 육각계단	2
주차장 및 화단 주변	5
화장실 천장, 교육관 계단, 엘리베이터 내부	9. 대건회

◎ 성삼일·주님부활대축일 전례 안내

4월 17일(목) 주님만찬성목요일	오후 8시 - 주님만찬저녁미사 (미사 후 성체조배)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을 확인바랍니다.
4월 18일(금) 주님수난성금요일	오후 3시 - 십자가의 길(단식, 금육) 오후 8시 - 주님수난예식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
4월 19일(토) 파스카성야	오후 8시 - 파스카성야미사 (준비물 : 부활절예물) ※ 오후 3시 어린이미사 없음
4월 20일(주일) 주님부활대축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주일학교), 오후 6시 ※ 오전 7시 미사 없음

※ 성삼일(4월 17일~19일)동안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십자가의 길

일시 : 4월 11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4월 18일(금) 오후 3시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시 : 4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성전 및 임시 고해실

※ 사순시기 동안의 모든 고해성사는
부활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2025년 2분기 전신자 성서책 읽기

1.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구매 : 4월 13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 희년 맞이 연희동성당 바자회

희년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시 : 5월 18일(주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성당 마당 및 교육관

바자회 물품 대상 : 먹거리, 깨끗한 의류, 신발·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등

물품 기증 : 4월 매 주일(4월 6일, 13일, 20일, 27일)

후원 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 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시설)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4월 10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성서 백주간 모집

백주간(121주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일시 : 매주 금요일 10시미사 후

문의 : 대표 봉사자 (010-5292-6379)

◎ 오늘은 산불 피해구호 2차헌금이 있습니다.

◎ 4월 20일은 미안마 긴급구호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3. 3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11	607 (30.2%)	560 (27.9%)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영자 율리안나 상가이십만원

◎ 감사헌금 (3월 24일~30일)

곽선모오천원 이화영일만원

익명삼십육만원 박옥남오만원

권태진이십만원 엄순자오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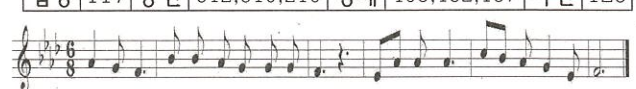
익명일백만원 정득훈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사순 제4주일)

교무금11,779,000원

주일헌금6,047,000원

입당 117 봉헌 512,510,216 성체 198,182,187 파견 125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 - 리는 기 - 뻘 하 였네